

2021년 2월 17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식량정책과 과 장 김정주(044-201-1811), 서기관 김정락(1815) / 제공일: 2월 17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쌀값 상승은 지난해 이상 기상에 따른 생산량 감소 영향,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37만톤 공급 등 추진 [한국경제 2.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- 쌀값 상승은 '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'의 부작용이 아니라 '20년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주요 원인임
 -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시장에 공급하여 쌀값 안정 노력 중
- 쌀은 구조적 공급 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논콩 전문단지 조성 등을 통한 적정 생산과 소비 확대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
- 2월 17일 한국경제 A13면 <논에다 콩 심으라더니...20% 뺀 쌀값의 진실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☐ 쌀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3년간 정부가 진행한 '타작물 재배사업'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옴
 - 우선, 정부가 쌀 생산량을 의도적으로 줄임. 2018년부터 논·콩 타작물 전환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간 5만여ha의 벼 경작지를 없앴음. 벼 생산량이 줄자 가격이 뛰었고 정부 수매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음.
 - 정부가 역효과 때문에 3년 만에 사업을 접음. 첫째(2018년) 1700억원이던 예산은 지난해 686억원으로 줄었고, 올해는 한푼도 배정되지 않음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726천ha로 전년(730천ha) 대비 0.5% 감소한 반면, 쌀 생산량은 351만톤으로 전년(374만톤) 대비 6.4%(24만톤) 감소하였음
 - 생산량 감소 폭이 재배면적 감소 폭보다 큰 것은 지난해 집중호우, 연속된 태풍 등 영향으로 작황이 저조*했기 때문이지, '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'으로 벼 재배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님
 - * 생산단수 : (평년, '15~'19 절단평균) 530kg/10a → ('19) 513 → ('20) 483
 -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.25일 정부양곡 37만톤 공급 계획*을 발표하고, 1월부터 정부양곡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
 - * (1월) 12만톤('20년산 8만톤, '18년산 4만톤) → (2월) '19년산 6만톤 → (3월~) 19만톤 범위 내
- 또한, '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'은 '14~'17년 지속된 풍년으로 산지 쌀값이 20년 전('96년 33,225원/20kg)보다 낮은 31,692원/20kg('17.6월)까지 하락하고, 정부재고가 급증*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'18년부터 '1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음.
 - * 정부재고 : ('14) 84만톤 → ('15) 135 → ('16) 170 → ('17) 186 → ('18) 144 → ('19) 87 → ('20) 98
 - 다만, '20년에는 직불제 전면 개편*을 검토 중에 있어 동 사업의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, '21년 '공익형 직불제' 도입 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을 종료하였음
 - * 직불제(변동)의 쌀 생산 유발 효과 등을 최소화하면서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
- 현재 벼 재배면적, 생산단수, 소비 감소 등 추이를 감안하면,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구조적 공급 과잉상황이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쌀 적정 생산과 소비 확대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
 - 특히 올해,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 종료되었더라도 논콩 중심으로 전문재배단지 조성, 계약재배, 시설·장비 지원 등을 확대 함으로써 쌀 적정생산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
 - * 논콩 재배단지('20: 44개소 → '21: 100), 종합처리장 증설('20: 10개 → '21: 14) 등